

파업지침 2호: 자동차 생산을 멈춘다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가 파업지침 2호를 결정하고 전국의 현장에 하달했습니다. 7월 15일 8만여명의 1차 총파업 돌입에 이어 두 번째 파업 지침입니다. 이번은 완성차지부와 부품사지회, 자동차업종의 정규직, 비정규직, 계열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파업입니다.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함께 파업에 돌입하는 유례없는 투쟁입니다. 8월 20일과 21일 이틀간 부품사와 완성차 노동자들이 교차로 파업에 돌입하여, 자동차 생산 타격에 위력을 더하는 초유의 전술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자동차 산업구조와 기형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우두머리, 현대차그룹을 겨냥한 대규모 집회투쟁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업종 노동자들은 각기 따로 교섭과 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지부로 조직된 현대차·기아차 노동자와 중앙교섭과 지부집단 교섭으로 묶인 부품사 노동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와 직서열과 핵심부품 자회사 노동자, 실질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하청·자회사 노동자들은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타격대상은 현대차그룹입니다. 이번 파업은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아 자본과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요구를 관철하는 투쟁입니다.

만만한 게 부품사나 더 후려칠 것도 없다

올해 초 현대차그룹은 1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 원가절감 방안을 제출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원가절감 달성률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을 차별화하는 패널티 제도까지 도입하겠다고 부품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부품단가 후려치기(CR)는 고질적이고 잔인하기로 유명했지만, 아예 대놓고 부품사 고혈을 짜기 위해 물량으로 협박하는 것은 상식과 도를 넘어섰습니다.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악화되는 완성차 수익률을 부품사 노동자에게 떠넘겨 개선하려는 고약한 셈법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부품사들에 단가 20%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거나 사람을 내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남의 한 부품사 지회장은 "뭘 더 절감하라는 거냐. 30년 동안 빼먹었으면 된 것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다른사업장 동지도 "절감할 것은 인건비 밖에 없다. 사람 짜르라는 이야기"라며 화를 참지 못합니다. 원자재값은 오르는데 부품단가는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아진 부품사의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 사이에 완성차 수익과 경영진 보수, 주주배당금은 쌓여갑니다.

이런 상식밖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민간제조업 노동자에게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전환=구조조정 정부가 있기는 한가

정부와 자본이 쏟아내는 산업전환, 기후위기, 미래차, AI 등의 온갖 미사여구에 '노동'은 없습니다. 저들이 만드는 탄소중립정책, 반도체법, K-스틸법, 메가특구법에 노동조합의 자리는 없습니다. 회사를 팔아 넘기고, 휴머노이드를 현장에 밀어넣어도, 저들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권한있는 자가 책임을 지라"는 하청·자회사 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에 현대차그룹이 미동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에 '원청교섭' 내용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것도 없고, 되려 원청교섭에 휘방만 놓은 노동부가 아예 손 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 공간을 채우려는 자본의 탐욕, 재벌독식의 산업구조를 방치하고 조장한 정부의 태도에 분노가 담긴 저항입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만드는지, 완성차 이윤은 어디서 나오는지 총파업을 통해 사회에 분명히 알립니다. 그 지점에 부품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결정은 완성차가 하고, 책임은 부품사가 지며, 희생은 노동자가 감수하라는 저들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모든 자동차 노동자들이 함께 생존하는 우리의 방식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향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 2호

금속노조 4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업 지침을 공지합니다.

- 아래 -

1. 쟁의권을 확보한 의견접근 불발 자동차 부품사, 현대차그룹 계열사, 자동차 업종 원청교섭 제기 단위조직은 8월 20일(목) 모든 교대근무조 각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한다. 파업 이행 단위조직은 사업장별로 '원청교섭 성사 및 부품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단' 요구 사회 쟁점화 파업임을 공유하는 사업장 보고대회를 전개한다.
2. 쟁의권을 확보한 의견접근 불발 자동차 완성사 단위조직은 8월 21일(금) 모든 교대근무조 각 6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한다.
3. 8월 21일(금) 파업 이행 완성사 단위조직은 파업 조합원이,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및 자동차 업종 원청교섭 제기 단위조직은 확대 간부가 14시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앞 상경 투쟁 집회를 전개한다.
4. 쟁의권이 확보된 자동차 업종 모든 단위조직은 8월 19일(수)~21일(금) 각급 단체교섭을 중단한다.

2026년 8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상만

